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음 3월 11일) 제226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초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7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금융위원회 제공)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금융위는 기존 금융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전북 혁신도시의 인프라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건성숙 시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을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논의 시기는 추진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로 말하기를 어렵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일 제3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추위) 회의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 37차 금추위에서는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및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 용역은 2008년 제 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해 온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을 평가하고, 금융중심지 정책의 효과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도출된 추진전략 하에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다.

용역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 후 금추위원들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

금융위 추진위 개최 결과

금융위 "현재 기존 중심지 내실화해야" 입장 밝혀

종합 생활여건 개선 제시

추가지정 추후 재논의

도 "안타깝지만 끝 아나"

당상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기존 금융중심지가 여전히 국제적 금융중심지로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금융중심지를 지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 전북 혁신도시 금융인프라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에 여건이 성숙할 경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은 경제적 여건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정치적인 의제가 돼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기관을 서로 유치하려는 제로섬 게임을 벌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중심지를 추가 지정하는 것보다는 서울과 부산 등 기존 중심지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중심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는 지적이 있어 현 시점에서는 기존 중심지 내실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않았다.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종합적인 생활여건 등 인프라 개선,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논리적 구체화 등이 제시됐으며, 전북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이행계획을 제시하고 이 이행계획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재논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됐다.

다만, 지정 절차 재개 시기는 못박아두지 않았다. 금융위는 "전북 등 잠재 후보도시의 성숙도와 추진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문제

로 특정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위 발표를 접한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북도민의 기대가 많았던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번에 결실을 맺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선박과생산업의 특화금융과 별개의 자산운용 중심의 전북 특화모델을 정책당국에 제시하면서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이 난 것은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이것을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도시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금융위 발표와 관련된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존중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기필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국소년체전 성공 기원

도체육회, 새만금국제마라톤 출전 체전 알리기 나서

최형원 사무처장 "체육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노력"

오는 5월 전북 일원에서 열리는 제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에 출전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7면)

도 체육회는 제57회 체육주간을 맞아 임직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14일 군산시 일원에서 열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건강(5km)코스에 참여했다.

체육주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에 실시하며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직장, 학교 등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주간이다.

당초 체육주간은 4월 마지막 주에 이뤄져야 하지만 올해의 경우 충북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4월25~28일) 일정과 겹쳐 체육행사를 앞당겨 진행하게 됐다.

그간 도 체육회는 체육주간을 맞아 직원간 소통과 화합 등을 돈독히 하기위해 자체 체육대회 또는 봉사활동(등산로·천변 쓰레기 줍기 등)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함께 하는 동행 체육' 실현을 위해 도내에서 진행되는 국제 규모의 대회에 출전해 엘리트 선수와 마라톤 동호인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단순히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달 익산시 등 도내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홍보활동에도 앞장섰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체육주간행사를 뜻깊게 치르기위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체육을 통해 하나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체육회는 임직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14일 군산시 일원에서 열린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에 참여해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홍보했다.

도, 장애학생체전·소년체전 성공 힘 모아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서 도체육회와 함께 홍보

전북도는 14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에서 도 체전준비단과 전북체육회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 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현장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 체전준비단에서는 대회의 흥행을 위해 100주년 3.1절 기념식과 진안 운봉산 고로쇠 축제장에서 현장홍보를 통해 대회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이번 대회가 30여일 앞으로 다가

온 시점에 전북체육회(최형원 사무처장 39명)와 함께 현장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회성공에 힘을 모았다.

김영민 체전준비단장은 "도민의 무관심으로 대회 개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도 체육회와 함께 현장홍보를 함으로써 양대체전의 성공개최가 기대된다"며, "구분 체전을 문화예술품 관공이 어려워지고 전북도 이미지를 제고하는 대회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